

의약분업			번호: III - B - 2		
제 목	국문	의약분업 정책도입 전후의 외래 의료이용 비교			
	영문	Health care utilization analysis before and Korea's Drug Policy Reform; '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roles' policy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정상혁 <sup>1)</sup> , 고광욱 <sup>2)</sup> , 박시운 <sup>3)</sup> , 신의철 <sup>4)</sup> , 이선희 <sup>1)</sup> , 정우진 <sup>5)</sup> , 황진미 <sup>6)</sup> 1)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2)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3) 한국누가회, 4) 가톨릭의대 예방학교실, 5)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6) 인천기독병원 임상병리과			
	영문	Sang Hyuk Jung <sup>1)</sup> , Kwangwook Koh <sup>2)</sup> , Si-Woon Park <sup>3)</sup> , Euichul Shin <sup>4)</sup> , Sun Hee Lee <sup>1)</sup> , Woojin Chung <sup>5)</sup> , Jinmee Hwang <sup>6)</sup>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3)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Korea, 4)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6)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Incheon Christian Hospital			
분 야	보건관리 의약분업	발 표 자	정상혁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의약분업 정책 도입 전후의 외래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약사들의 임의적인 질병진단 및 처방행위가 의료기관 외래 의료이용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함</p> <p>2. 연구방법</p> <p>1997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의 보험청구후 심사 결정된 외래 의료이용 자료를 사용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음(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연보 및 발표자료)</p> <p>3. 연구결과</p> <p>가. 평균실측값 = 25,098,988건 평균이론값 = 26,044,643건</p> <p>나. 의약분업이후 자연증가율 곡선보다 다소 낮은 의료이용건수를 보여줌</p>					

#### 4. 고찰

가. 의료이용건수는 그동안의 직선적인 수진율증가 감안시 오히려 다소 감소한 현상을 보여주며, 이는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임

나. 약사들의 임의조제 행위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수단인 약사법을 분석해 볼 경우 약사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